

모집단위	종 목	문 제
디자인학부 무대미술전공 AI미디어 콘텐츠전공	기초디자인	<p>(문제은행 5번, 15번)</p> <p>인쇄물로 제공된 사물들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화면에 자유롭게 구성·디자인 하시오.</p> <p>**주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된 사물 이외의 형상은 표현하지 말 것. 2. 제공된 사물의 색 이외는 사용하지 말 것. 3. 제공된 사물을 여러 시점에서 표현하는 것은 무방함. 4. 재료는 자유롭게 선택할 것. 5. 화지방향은 가로로만 할 것.
영화영상전공 (연기)	실기 고사 [지정 연기]	소재 <p>“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순간을 깨닫지 못해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혀 모르죠. 저는 그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몰라요. 엄마가 저에게 밥을 차려주던 순간, 아빠가 저를 안아주던 순간, 친구들과 웃던 그 순간들... 모두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는 그걸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p>
		소재 <p>“사랑이란 게 왜 이런 걸까? 왜 나는 디미트리어스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거지? 나는 그가 미워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를 사랑해. 어쩌면... 나는 더 미워질지도 몰라. 하지만, 내 마음이 자꾸 그를 따라가. 내 발걸음도 자꾸 그를 쫓아. 모든 게 그를 향하고 있어. 사람들은 사랑이 눈이 멀었다고 하지만, 나는 사랑이 너무도 분명히 보이는데... 왜 나는 그에게 보이지 않는 걸까? 이제 그를 봐도, 나는 그에게 다가갈 수 없어. 아, 디미트리어스...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니?”</p>
		소재 <p>“추억을 더듬으려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 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덮이 깔려 있고 망루 위의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p> <p>(소리가 들린다) 바람소리? 아니면 이리떼가 몰려오는 소리일까? 무서워지는데, 난 어찌면 좋아. 황야는 어젯밤보다 수천 배나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외톨이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쓸쓸한지 아시겠지요? 하지만요. 주무십시오. 어떻게 난 견뎌보겠어요.</p> <p>나 혼자다. 눈을 뜨고 있는 건 나 혼자뿐야.--- 바람 소리? 아니면 이리떼가 몰려오는 소리일까? 아무래도 수상해. 난 어찌면 좋지? 그래 망루 위에 올라가자. 눈을 뜬 건 나뿐이잖아. 내가 이리떼를 감시해야지.</p> <p>이리떼만 없으면 이곳은 얼마나 평화로운 곳일까? 지평선 저 멀리 하늘가를 좀 봐. 하얀 구름이 흘러가네.---</p> <p>북 소리 중지! 이리떼는 몰려갔다!”</p>

모집단위	종 목		문 제
영화영상전공 (연기)	실기 고사 [지정 연기]	소재	<p>아니요 모두 데려가야 해요. 시간이 없다고 포기하실 건가요?</p> <p>지금 모두 지치고 힘들어서 그럴 거예요</p> <p>하지만..... 하지만 우리 지금까지 우리 잘해왔잖아요.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p> <p>힘들다고 포기했으면 지금껏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었을 까요?</p> <p>희망을 가지고 버텨온 것처럼.....이번에도 살아서 나갈 수 있어요.</p> <p>맞아요, 우린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예요.</p> <p>식구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p>
연극전공 (연기)	실기 고사 [화술]	소재	<p>그 사람도 역시 몸을 부들부들 떨고 그 얼굴빛이란 정말 창백했었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려 그의 손을 보니깐, 글썽 어찌면 피스톨을 쥐고 있지 않겠어.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 거룩한 내 사랑이여!”하고 속삭이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다 해요. “우리 부모는 내가 당신과 결혼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과 헤어지지 않는다면 평생 부모 자식의 인연을 끊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권총은 유난히도 컸고, 탄환이 열 개씩이나 재여 있었어.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내 사랑하는 마음의 친구여! 내 결심은 이제 변할 수 없는 거야”라는 거야.</p>
		소재	<p>모처럼 와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야, 너는 좀 다른 줄 알았다.</p> <p>동창이라는 놈들, 나를 얼마나 괘시하는 줄야?</p> <p>장사하자면 한두 번은 창피를 당하는 거야.</p> <p>탈세 한번 해서 걸렸다고 나를 사기꾼으로 봐? 동창생 놈들이.</p> <p>왜 그게 탈세야? 너무 억울해서 신고를 안 했다 뿐이지.</p> <p>풍문에 너도 한번 당했고 모든 게 귀찮아 시골서 산다고 해서...</p> <p>혹시나....혹시나 해서 왔는데.... 좀 배웠다는 놈이 나올 게 없어.</p> <p>뭐 유일한 친구는 미국서 자살한 그 친구뿐이라고?</p> <p>그것도 내 면전에서. 야, 천당간 그 친구 붙들고 잘 살아라,</p> <p>더러워서.</p>
		소재	<p>그제야 저는 이해가 갔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말예요. 친구들과 함께 떠들썩하게 어울렸던 청춘생활을 멀리해야 했어요. 그런 짓이 제게는 무리였나 봐요. 이를테면 인과응보였지요.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었어요. 완전히 인생을 망친 거예요. 제 잘못으로 말이에요. 제가 이 세상에서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들을 이젠 생각조차 못하게 된 거예요. 아,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p>
		소재	<p>정말 지쳐 버렸어요! 좀 쉬고 싶어요. 조금만! 그래요, 그 사람은 연극이라는 것을 신용하지 않고 언제나 내 꿈을 비웃고만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점점 신념이 없어지고 맥이 풀어지고 말았어요. 게다가 또 사랑의 고민이니, 질투니, 어린애에 대한 공포니 등으로 노상 마음을 죄어서 난 소심하고 초라한 사람이 되어 버려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연기를 하고 있어요. 손을 어떻게 놀려야 할지도 모르고 무대에 서 있을 수도 없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형편없는 연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느낄 때의 기분, 당신은 도저히 모르실 거예요.</p>

모집단위	종 목		문 제
연극전공 (연기)	실기 고사 [화술]	소재	<p>예전에 살던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어. 세입자들이 톨톨 뭉쳐서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해 투쟁에 돌입했지. 철거 용역들이 건물에 접근하면 옥상에서 폭탄이 쏟아졌어. 그게 뭔지 알어? 오줌폭탄! 똥폭탄이야! 죽기를 각오하고 지켰지만, 점점 불리해졌지. 그러던 어느 날 옥상 난간 앞으로 한 여편네가 석유통을 들고 나타나더니 소리쳤어. 야 이 개자식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잠시 뒤 누군가 불이야! 불이 났다고 소리쳤어. 그 여편네는 커다란 불덩이로 비틀거리다 쓰러졌지. 언론이 떠들고 정치권도 관심을 보인 덕분에 살아 남은 놈들은 그럭저럭 보상받고 떠났다지. 그 여편네가 보여준 게 바로 악이야. 그런 악이 있어야 버티는 거야.</p>
		소재	<p>당연하지! 이번에 잘 봤지! 무조건 합격...! 이라는 말 못 해줘서 미안해. 여보세요? 여보세...(전화가 끊겼다, 다시 전화하는) 전화를 왜 그렇게 끊어? 나 속상하게! 그래, 나 못났다. 못나서...(말을 잊지 못한다) 그렇다고 내가 좌절하길 바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엄마한테 끝까지 좌절하는 모습 안 보여주려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나 자신한테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나는 절대 안 못났다! 다만 기회가 없었다!’라고 세뇌시키고 있는데, 꼭 그렇게 얘기해야 해? 알아, 안다고. 엄마도 속상해서 그러는 거. 근데 나보다 더 속상해?</p>
사진영상 미디어전공	사진 촬영 실기	소재	<p>[출제분야] 제한된 공간에서 주어진 주제로 30분 이내 사진촬영 후, 9컷 선정 후 파일 제출.</p> <p>시간의 흔적을 찾아 다양한 심미적 형상으로 표현하세요.</p> <p style="text-align: center;">*유의 사항 (모든 사진은 적정 노출을 기본으로 촬영하세요.)</p>
디지털만화 영상전공	만화 능력 테스트	소재	<p>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의 온난화를 막으려는 여러 가지 정책과 협의들이 있다. 그 중 ‘축산업’에 의한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비건’ 혹은 ‘채식주의’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p> <p><u>“육류 위주의 식단을 좋아하는 ‘나’는 위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채식’을 하려고 한다. 하루 식사 시간 중 유희에 빠지는 순간부터 벗어나는 순간까지의 상황을 만들어서 단 하루 혹은 한 끼라도 비건에 성공하는 이야기를 만화적 상상력으로 표현하시오.”</u></p>